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8)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온 겨레를 품어 안아 통일애국의 한결로 이끌어주신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는 1995년에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 박용길녀사가 평양에 체류하고있던 어느날 그를 몸소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평전을 찾아 어려운 길을 와주어 고맙다고 하시면서 문목사도 오고 남방의 4천만이 온종로 알겠다고, 먼저 가신분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정말 이제 통일은 다된것같은 생각이 든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한 경제협력의 길을 개척한 정주영선생에게 늘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의 사업을 잘 도와주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발표후 공화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또다시 만나주시였다.

정주영선생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념촬영이후에 명예회장 선생이 불편해하니 앉아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고 또 이듬해는 상한 관절때문에 불편해하는데 치료를 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하시였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앉아있으라고 하시면서 두차례에 걸쳐 귀중한 보약과 송하수에뿜도 보내주시였다. 2001년 3월 그가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는 애석함을 금치 못하시며 조의대표단을 파견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진정한 겨레를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친절같은 동포애의 세계를 펼칠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동포애, 인민의 세계에 끌려 남조선친도교 중앙본부 교령이었던 오익제선생, 범민련 해외본부 의장이었던 량창영선생, 재미뉴기자 문명자선생, 재미동포 손원태선생과 흥동근목사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지침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에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나서는 원칙과 사상리론적기초,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80(1991)년 8월 1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저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경험이 집대성된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그 본질적내용을 이룬다고 하시였다. 여기에는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라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 조선민족은 누구나 다 조국통일의 주체이며 따라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민족대단결의 기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 뜻깊은 가르침에는 민족대단결의 기초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민족대단결의 근본원칙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것을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유리당하고있는 오늘 조선민족이 어떤 어느 계급과 계층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전면에서 내세워 민족의 대단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절세 위인의 통일 리념 노래 《우리는 하나》

주제67(1978)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장군께서는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재미 배달민족회 회장이었던 최덕신선생을 만나주시였다. 최덕신선생을 반가이 맞으시고 그의 부친을 회억도 하시며 화기에애한 동포애의 정을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라고,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민족의

분열이 비록 외세에 의해 강요 당한것이지만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우리 민족자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문제라고, 우리는 민족자주적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민족자주,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불변의 통일리념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제 90(2001)년 7월 어느날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특별 과업》을 주겠다고 하시고는 악보 하나를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보친보친자막단 작곡가가 노래 《우리는 하나》를 창작하였는데 노래가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특히 가사가 아주 좋다고, 그 노래가사에 있는 민족도 하나이고 피줄도 하나이며 뭉치면 하나이고 들합치면 더 큰 하나라는 표현들은 철학적이기 있는 표현들이라고 하시

였다. 그러시고는 인민공훈장장단(당시)에서 노래 《우리는 하나》를 합창으로 잘 형성하도록 하라고 이르시면서 누구나 다 화회의 감정을 가지고 쉽게 부를수 있는 통속적인 노래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후 이 노래는 녀성동창과 남성합창으로 훌륭히 형성되어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으며 겨레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통일의 노래로 널리 불리우게 되었다. 본시기자



조국해방 70주기 민족통일대회 (2015년 8월)



통일을 불러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로 (1)

자본주의 이역땅에서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조국의 흥성번영과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 한덕수의 장의 이름과 공적은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새겨져있다. \* \* \* 오랜 기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의장으로 사업한 한덕수선생은 1907년 2월 경상북도 어느 한 농가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태어난 해는 우리 민족사에 치욕의 기록을 무수히 남긴 비통하고 다사다난한 해였다. 리준이 헤그에서 활부자결한것도, 황제인 고종의 퇴위와 일제에 의한 조선군대의 강제해산이 선포된 것도, 《정미7조약》이 날조되고 《차관정치》의 강행으로 우리 나라 내정권이 모두 일제의 수중에 넘어간것도 이 해였다. 당시 조선의 모든 농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덕수선생도 어렸을 때부터 땅속의 설을 안고 빈곤한 생활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였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그리스도 계통의 소학교, 중학교를 다녔지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비운의 조국강산을 뒤흔들며 울려 퍼진 3.1의 독립만세소리에 그의 뇌리에 반일애국의를 싹틔운 계기로 되었다. 그의 고향사람들도 《일본군대와의 일본인은 물러가라!》, 《조선 독립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거리에 떨쳐나섰다. 당시 사립학교 학생으로서 12살밖에 안되던 한덕수선생도 동네어른들과 함께 시위대에 합세하여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러나 독립의지로 가슴끓이는 애국적인민들의 독립만세의 함성도 일제의 압제의 쇠사슬을 끊어 버릴수 없었다. 경상북도 대구사립계성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2년후에 중퇴한 한덕수는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왕이었던 순종이 사망한것을 계기로 일어난 6.10만세시위투쟁으로 일제의 살벌한 폭압이 절정에 달하였던 때에 정든 조국산천과 리별하고 일본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일본땅에서 그는 높은 향학열을 안고 1928년에 도포니총대학 전문부 사회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소년시절에 붙은 《3.1사건련루지》라는 무명으로 대학에서 쫓겨나 교역에 찬 로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죽음의 고역장이었던 단나차골공사장에서 그는 땅속의 설을 이 어쩔것인가를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천정에서 수시로 무너져내리는 부석층, 밑에서 그칠새없이 터져올라오는 석수로 몸서리치는 대사고가 련이어 발생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위험한 공사장에서 억울한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수많은 조선인로동자들이 피눈물나는 고역살이를 하였다. 왜나라 땅에서 고된 로동과 몸서리치는 죽음을 강요당하는 동포들의 처지를 두고 비분에 몸부림치던 한덕수는 더는 참을수 없던 목숨을 내걸고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로동조합을 맺고 그 주위에 로동자들을 묶어세웠으며 일제의 살인적인 로동강도와 민족차별을 반대하여 앞장에서 싸웠다. 이것으로 하여 일제경찰에 여러번 체포도 되고 여러해동안 감옥살이도 하였다. 참으로 일제에게 식민지노예로 전락한 조선사람들에게는 그 어

디나 다 인간생 지옥이었다. 그는 육신의 고통보다 지겨울 품이 없는 땅속노의 처지를 한탄하며 비분의 눈물을 뿌리었다. 허나 것처럼 앓았던 우리 민족의 운명에도 광명이 비쳐들었으니 그것은 왜나라 땅에까지 불어온 백두산바람이었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전과에 대한 소식은 절망의 심연에서 믿음하는 재일동포들의 가슴에 가슴에 일무의 희망과 재생의 신념을 안겨준 동태였다. 한덕수는 민족의 영웅을 맞이한 환희와 격정에 넘쳐 동포들에게 조국해방의 심심과 락관을 안겨주며 반일선전을 힘있게 벌렸다. 드디어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고대하던 그날은 오고야말았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어 칠성관에 올랐던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셨던것이다. 본시기자



한덕수선생



민족우선의 립장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하자면 민족우선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우선의 립장을 견지한다는 것은 조국통일의 주체는 조선민족 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민족의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

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우선의 립장을 견지하는것은 당연하다. 위세에 의하여 강요된 나라의 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은 70여년세월 해아림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분열과 대결속에 산다는것은 민족적수치이고 비극이다. 진정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민족우선의 립장에 철저히 서서 조국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은 누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할 민족사적위업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통일을 결심한 바라는 사람도, 통일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당파, 소속의 차이는 있을수 있어도 우리 겨레가 지닌 애국의 마음은 하나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경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어넘어 민족우선의 립장에 서야 하며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본시기자 전명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의로운 투쟁은 공화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아왔다. 반사련전국은 이번호부터 조국통일의 길에 아로새겨진 남녘겨레의 정의의 애국투쟁의 자욱들을 더듬어본다. \* \* \* 위세의 식민지억속화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과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1946년 초부터 보다 적극화되었다. 1945년 12월말 모스크바 3국위협회의결정이 공포되자 남조선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위세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반탁》, 반공잡매니야를 대대적으로 벌리기 시작하였다. 모스크바3국위협회의는 이전 소련, 미국, 영국의 외상들이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모스크바에 모여 제2차 세계대전후의 세계문제와 조선문제를 토의한 회의였다. 조선문제토의시 미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실현시키려고 제2차 세계대전중 에 루즈벨트에 의해 구상된 《신라통치안》의 통과를 위

해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하지만 조선에 민주주의립시정부를 수립하며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민주주의적이며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전 소련, 미국, 영국, 중국(국민당중국) 4개국이 5년내를 립시적인 기한으로 후견을 실시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미국은 조선에 미군정의 연장인 식민지반동 《정권》을 수립하는데 관심이 있었던것만큼 회의가 끝나기 바쁘게 3국의 상회결정을 《4개국 위임통치안》으로, 조선에 대한 《신라통치》를 위한 결정인듯의 곡선전하면서 남조선의 반동세력을 사족하여 결정을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8.15이후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변신한 남조선의 민족반역세력은 《반탁》의 구호밑에 군중을 동원해버리고 《반탁국민총동원위원회》(1945년 12월), 《민족통일총본부》(1946년 6월) 등을 조작하는 한편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류형적탄압과 란동을 감행하여나섰다. 위세와 그 앞잡이들이 강행하여나선 《반탁》, 반공잡매니야에 남조선의 로동자들을 비롯한 애국적민주력량은 대중적투쟁으로 대항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불순한 《반탁》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적민주주의립시정부를 세우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리었다. 이 투쟁의 앞장에는 로동자들이 서있었다. 1946년 1월 3일 로동자들을 선두로 한 30민족의 개개층 서술시민들은 《진보적인민정권을 세우자!》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서울운동장에서 모여 《민족통일, 자주독립촉성서술시민대회》를 가지였다.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우리의 살결은 원칙에 립한 민족통일전선의 완성이다. 자주독립국가의 완성이었다.》고 웨치며 통일적민주주의립시정부를 세우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과시하였다. 통일적민주주의립시정부수립을 지지하는 군중시위와 집회는 군산, 대구, 인천, 광주, 화순, 영월, 부산을 비롯하여 주요 지방도시와 산업지대로 확대되어갔다. 남조선인민들은 8.15후 처음으로 맞이한 3.1운동기념일과 5.1절에 《반탁》책동을 반대하고 통일의 앞길을 열기 위한 양양된 분위기속에서 맞은편서 수습만공중이 참가한 대규모시위와 집회를 벌리었다. 통일적민주주의립시정부수립을 지지하는 군중시위와 집회는 8월말까지 80여차례에 달하였다. 《반탁》소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운동은 위세와 그 추종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본시기자 김영진